

# 노인 SNS 활용 능력 증진을 위한 효과성에 관한 연구 -동년배 멘토 활용을 중심으로-

최예식<sup>1</sup>, 권순철<sup>2\*</sup>, 이승현<sup>3</sup>, 임성규<sup>4</sup>, 조성원<sup>5</sup>

<sup>1</sup>(주)우진티엔에스 대표, <sup>2</sup>광운대학교 스마트융합대학원 스마트시스템학과 부교수,  
<sup>3</sup>광운대학교 스마트융합대학원 스마트시스템학과 교수, <sup>4</sup>(주)에스비티엔에스 대표, <sup>5</sup>경기대학교 산학협력단 조교수

## A Study on the Effectiveness of Social Networking Service for the Elderly

-Focusing on the use of mentors of the same age-

Ye-Sik Choi<sup>1</sup>, Soon-Chul Kwon<sup>2\*</sup>, Seung-Hyun Lee<sup>3</sup>, Sung-kyu Lim<sup>4</sup>, Seung-Won Cho<sup>5</sup>

<sup>1</sup>CEO, WOJIN T&S CO., LTD,

<sup>2</sup>Associate Professor, Department of Smart Systems, Graduate School of Smart Convergence,  
Kwangwoon University,

<sup>3</sup>Professor, Department of Smart Systems, Graduate School of Smart Convergence, Kwangwoon University,

<sup>4</sup>CEO, S&B TNS CO., LTD

<sup>5</sup>Assistant Professor, Gyeonggi University Industry-Academic Cooperation Foundation

**요약** 본 연구는 노인을 위한 SNS 활용 교육의 효과성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연구 참여자는 현재 교육에 참여하고 있는 교육생과 보조 강사로 활동하고 있는 동년배 멘토를 연구대상으로 심층인터뷰를 하였다. 연구는 동년배 노인이 멘토가 되어 수업을 할 때, 어렵게만 생각하는 SNS 활용 교육이 보다 유효한 수업이 될 수 있는가를 연구하였다. 연구 결과는 노인 SNS 활용 교육 후 동년배의 친근한 배려와 공감으로 어려운 기기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나 즐겁고 보람된 교육이었다고 한다. 노인 SNS 활용 교육에 동년배 멘토를 활용한다면 기기에 대한 두려움과 노인에게 어렵고 부담스럽게만 여겨지는 SNS 교육이 보다 유연한 교육으로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주제어** : 노인정보화교육, 동년배, 멘토, 삶의 질, 생활 만족도, SNS활용

**Abstract** This study covers the effectiveness of SNS utilization education for the elderly. Participants in the study conducted in-depth interviews with trainees currently participating in education and mentors of the same age who are working as assistive instructors. The study deals with whether SNS utilization education, which is considered difficult, can be a more valid class when an elderly person of the same age becomes a mentor and teaches a class. The results of the study said that it was a fun and rewarding education after using SNS for the elderly, free from fear of difficult devices due to the friendly consideration and empathy of the same age. If a mentor of the same age is used for education on SNS for the elderly, SNS education, which has been considered difficult and burdensome for the elderly, is expected to be activated with more flexible education.

**Key Words** : Information service education for the elderly, peers, mentors, quality of life, satisfaction in living, SNS utilization.

\*Corresponding Author : Soon-Chul Kwon(ksc0226@kw.ac.kr)

Received February 10, 2021

Accepted May 20, 2021

Revised April 13, 2021

Published May 28, 2021

## 1. 서론

### 1.1 노인과 SNS

21세기 세계 각국의 주요 사회현상은 정보화와 고령화로 인터넷 및 스마트폰의 보급과 함께 소셜미디어(social media)환경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 이로 인해 의사소통의 방식도 변화하고 있다[1]. 1990년대 중반 이후 정보기술의 발달과 정보기술 보급의 확대에 의해 급속도로 정보화가 진행되고 있다[2]. 한편 UN은 65세 인구 비율이 7%를 넘으면 고령화 사회(aging society), 14%를 넘으면 고령사회(aged society), 20%를 넘으면 초 고령 사회(super-aged society)로 분류하고 있다. 현재 국내의 경우에는 노인 인구 비율이 2000년부터 7%가 넘어가면서 고령화 사회로 진입했고, 이 비율은 2015년 12.7%, 2018년 14.5%를 기록했다. 또 이 비율은 2026년경에는 24.5%에 도달해 초 고령화 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측된다[3].

노인이 빠른 사회의 변화에 적응하는 것은 중요한 과제로,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어 준비가 부족한 상태로 수명만 연장된 노인들의 노후는 결코 행복한 삶이 될 수 없다[4].

해마다 SNS 이용률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노인들은 SNS로 연결되는 소통 망에서는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있다[5].

더욱이 최근에는 사이버 공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온라인 사회적 관계망의 확산으로 페이스북 북이나 트위터 같은 사회관계망 서비스 SNS(Social Network Service) 들을 통하여 현대인들은 직접 대면하지 않고서도 관계를 강화하며 폭 넓은 소통을 활성화하고 있다. 온라인을 통한 사회적 관계망의 확산은 물리적으로 이동에 취약한 다수의 노인들에게 소통을 보완하는 양약으로 사용되기도 하지만 정보통신기술에 취약한 다수의 노인들에게는 오히려 사회적 고립과 소외를 심화 시키는 독약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 1.2 동년배 교수의 방법

노인정보화교육에 있어 동년배 강사에 의한 동료교수법(Peer Tutoring), 1인 강사와 다수의 보조강사를 혼합한 학습, 1:1 맞춤형 학습, 온-오프라인 학습을 혼합한 혼합학습방법(Bended Learning) 등을 적절하게 활용할 필요가 있다. 동료교수법은 비슷한 환경의 동료집단에서 학습자간 친밀성을 기반으로 교사의 보조자적인 위치에서 학습자가 필요로 하는 부분을 돕고 가르치면서 스

로 학습하는 방법으로, 역할모델이론과 근접발달이론, 행동주의이론에 근거하는 교수법이다. 노인세대에서의 동료교수법은 동료 간의 친밀성과 안정성을 기반으로 자기 효능감을 증진시키는 효과적인 교수-학습 방법 중 하나로, 개별화수업을 가능하게 하는 대안으로 논의되고 있다[6].

따라서 SNS가 급속도로 발전되고 확산되는 현 사회에서 노인이 소외되지 않고 사회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을 교육하는데 있어 교수법이 중요하다 하겠다. 정보화와 고령화 사회에서 노인의 사회관계 형성과 확장 및 사회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정보화 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 SNS의 기기 활용에 대한 두려움과 거부감으로 교육 참여를 꺼리는 노인들에게 교육 참여를 독려하고 활성화를 증진시키기 위한 다양한 교수법 연구가 필요하다. 지금까지 노인들의 정보화 교육의 교수법에 관하여 많은 논의가 되어 왔고 그중에 다수의 논문을 통하여 동년배 교수법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위와 같이 동년배 멘토를 활용한 교수법이 노인의 SNS 활용 능력 증진에 미치는 영향과 효과성에 대하여 규명하고 의사소통과 관련하여 삶의 질과 생활 만족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연구하는 것이 이 연구의 목적이다.

위의 연구 문제로는 첫째, 노인들의 정보화 교육에 대한 의미는 어떠한가? 둘째, 노인들의 SNS 활용 능력이 생활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셋째, SNS 활용 증진을 위한 방안으로 멘토의 역할과 자기 효능감에 대한 차이는 어떠한가? 이다.

이에 이 연구를 통하여 동년배 멘토를 활용하는 교수법이 노인 학습자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파악하는데 초점을 두고 노인학습자의 관점에서 동년배 멘토에 의한 교수법의 효과성을 확인하고 노인 SNS 활용 증진을 위한 교육의 방향성과 방법 등에 관하여 연구·분석하고자 한다.

## 2. 이론적 배경

### 2.1 SNS의 개념

SNS란 Social Network Service를 축약한 표현으로 온라인상에서 자신의 프로필을 구성하고 자신을 표출함으로써 타인과의 관계를 형성하고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서비스이다[7].

소셜 네트워크란 인터넷이라는 특정 공간에서 연결된

모임을 뜻하며, 이러한 모임을 소셜 미디어라고 한다. 또한, 소셜 미디어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즉 SNS라고 한다[8].

SNS형식에는 인스타그램(Instagram), 트위터(Twitter), 페이스 북(Facebook)등이 있는데 최근 몇 년 사이 하루가 다르게 생겨나고 있는 SNS로 인해 그 유형의 경계 또한 모호해지고 있다. 대부분 복합적 유형으로 업그레이드되면서 이용자들에게 보다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더 나아가 온라인 카페, 블로그, 미니홈피, 프로필 기반 서비스, 마이크로 블로그, 등 유형을 더욱 세분화시켜 자신만의 단체를 만들어가고 있다. 또한 SNS는 지역적 한계를 뛰어넘어 글로벌 사회를 만드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9].

## 2.2 노인 SNS의 활용 현황

정보화진흥원의 디지털정보 격차(2019)에 따르면 2019년 장 노년의 디지털 정보화 수준은 64.3%로 전년 63.1% 보다 상승하였다[10].

2018 인터넷 이용 실태조사 결과 메신저 서비스의 경우 60대 이상 1인 가구에서도 86.1%의 이용률을 보였다 [11]. 인터넷을 통한 관계 형성이 노인의 고독과 소외를 완화하고 우울증을 낮춰주며, 노인의 정보화 이용은 사회 활동, 사회적 지지, 자존감 상승 등 노인의 정신적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12].

노인정보화교육은 자기 효능 감 자신감 향상, 만족스러운 노후생활 촉진하는 데는 정보 이용이 타인과의 소통과 교류, 사회 참여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쳐 노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다[13]. 스마트폰을 통한 정보 활용은 삶의 만족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칠 뿐만 아니라 스마트폰 이용성과를 매개로 한 간접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14].

## 2.3 노인 SNS의 활용의 문제점

노인이 가지는 특성으로 인해 노인정보화 교육은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젊은이들에 비해 노인은 육체적으로 운동능력과 감각능력이 떨어지며 더욱이 심리적으로 새로운 것에 대하여 배우기를 꺼려한다. 노인들은 육체적, 심리적 특성으로 인해 정보화 교육에는 한계가 있다. 특히 정보화 교육은 다른 교육에 비해 신기술 교육이므로 더욱 어렵게 생각하여 교육에 참여하기를 꺼리는 경우가 많다. 또한 노인학습자의 심리적인 특성과 신체적, 인지적 특성으로 다른 수업(노인들이 참여하는 일반적인 강좌)과 달리 노인 SNS 교육의 경우 편차가 크다.

노인 SNS의 활용의 문제점으로는 디지털 정보화 역량 수준(모바일, 컴퓨터 이용 능력) 50대는 국민 평균의 70% 수준, 60대는 41.3%, 70대 이상은 16.2%로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 노년층은 스마트폰을 보유하고 있으나 사회 변화에 발맞춘 '정보'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는, 즉 정보화 수준이 다른 세대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은 세대와 동료 간 정보격차를 경험하거나 정보로부터 소외된 정보 취약계층으로 밀려나 삶의 질이 낮아지고 노인 세대의 소통 부재를 야기하여 심각한 사회문제를 낳을 가능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5]. 스마트폰이 대중적 정보 기기로서 자리를 잡고 있으나 노인 연령층의 스마트폰 보급률은 아직 다른 연령층에 비해 낮은 수준에 있어 이러한 결과는 노인 연령층이 여러 가지이유로 스마트폰에 대하여 접근이 어렵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다[16].

현재 노인 복지기관 정보화교육은 많이 실행되고 있지만 다양한 교수방법 활용이 부족한 실정이다. 1인 강사에 의한 전통적 면대면 수업방식이 일반적이며 노인학습자의 신체적·심리적·인지적 특성에 대한 이해도는 교수자의 학문적, 경험적 배경과 인식에 따라 많은 차이가 있다. 다른 세대에 비해 노인 대상 정보화교육의 효과적 교수법 개발이 노인에 의한 교육의 개념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거나 접목시킨 사례가 많지 않아, 관련 연구에 기반을 둔 효과적 교수법의 개발과 적용이 시급한 상황이다 [15].

## 2.4 동년배 멘토를 통한 교수법의 활용방안

개인의 발전과 성장을 증진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멘토링에 대한 관심은 커지고 있다[17]. 멘토(mentor)는 도움을 필요로 하는 멘티(mentee)와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관계 안에서 멘티의 욕구에 초점을 맞추어 잠재력을 개발하여 학업, 진로 그리고 사회적·개인적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지지하고 가르치며, 상담과 함께 돕는 역할을 한다. 또한 멘토는 멘티에게 개인적으로 후원자가 되기도 하고, 역할 모델, 교사, 코치, 상담자 등의 역할을 하면서 도움을 제공한다[18]. 멘토와 멘티는 일방적인 관계가 아니라 상호작용으로 이루어진다[19]. 노인정보화 교육의 실태와 실용화 방안을 살펴본 연구에서 노인을 이해하는 동년배 강사에 대한 선호도가 높게 나타났다 [20]. 노인을 위한 교육, 노인에 관한 교육, 노인에 의한 교육이라고 보기도 하는데 노인을 위한 교육과 노인에 관한 교육에 노인에 의한 교육을 포함하여 노인 당사자의 참여와 교류 측면을 부각시킨다[21]. 고령층 학습자들

은 기억력 쇠퇴, 감각·지각 기능 퇴화로 일반적으로 학습능력 저하로 노인세대는 정보화 수준에 있어 개인별 격차가 큰 편이므로 개별 학습자 특성·요구에 부합하는 맞춤형 학습방법 개발 보급 필요하다[15]. 인터넷 및 스마트폰의 활용은 사회적 관심과 접촉이 없는 노인의 고립 소외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22]. 이 연구에서는 날로 발전해가는 정보사회에서 노인들에게 유효한 정보화 교육의 활성화와 증진을 위한 방안으로 동년배 멘토를 활용한 교수법에 관하여 연구하고자 한다.

### 3. 연구방법

#### 3.1 연구대상 및 자료 수집

인터뷰 참가자는 서울시 소재 노인복지관 평생교육프로그램 중 정보화교육(스마트폰)에 교육 참여자 6명과 동년배 보조 강사로 활동하고 있는 5인의 노인 보조강사를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연구 참여자의 기초 정보는 Table 1과 같다.

Table 1. Basic information of interview participants

division	age	gender	Residence type	Usage period
A	81	Female	Single	5 years
B	79	Male	Couple	7 years
C	68	Female	Couple	5 years
D	77	Female	Couple	3 years
E	78	Male	Couple, Children	6 years
F	76	Female	Couple	1 year
G	82	Male	Children, Single	2 years
H	70	Female	Single	1.5 years
I	74	Female	Couple	1 year
J	75	Male	Single	2 years
K	81	Female	Children, Single	1 year

조사기간은 2019년 12월 첫째 주와 둘째 주 월요일 스마트폰 교육시간 90분과 이어 휴식타임을 마치고 2시간 정도씩 현재 교육 참여자와 과거 참여 경험자로 현재 보조강사로 역할을 하고 있는 대상자들로 선정하여 인터뷰를 하였다. 인터뷰의 내용은 참여자가 SNS 활용 교육의 당사자와 피교육자로서의 경험을 토대로 동년배 멘토를 활용하여 교육을 진행함에 있어 동년배 멘토가 함께한 교수법이 노인 SNS 활용 교육의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질적 연구 방법인 개별 심층 인터뷰를 실행하였다.

인터뷰 진행에 앞서 참여자들 개개인에게 연구의 취지를 설명하고 미리 참여 의사를 밝힌 대상자들을 상대로 시작하였다. 준비한 동의서를 받고 모든 인터뷰 내용은 참여자의 동의에 따라 녹음하였다. 연구자들은 연구 참여자가 진실 된 경험을 이야기 할 수 있도록 안정되고 편안한 분위기가 되도록 노력하였다. 또한 연구 참여자들의 반응 및 표정 등, 비언어적인 자료들도 따로 기록하여 인터뷰 내용과 함께 분석 자료에 포함 할 것에 동의를 구하였다. 단, 수업시간에는 인터뷰를 하지 않고 수업내용을 보고 듣고 메모하는 형식과 녹음으로 진행하였으며 수업이 끝나고 이어서 개별 인터뷰를 하고 사전 동의한 참가자와 사진 촬영을 하였다.

#### 3.2 자료 분석 방법

연구 자료는 연구자들이 각자 녹음된 녹취록을 전사하고 인터뷰 섭외 과정에서부터 마무리까지 작성했던 메모 등도 보조 자료로서 분석에 활용하였다. 작성된 메모 등을 토대로 공동연구자 간의 조사자 삼각검증 과정을 거치기 위해 수차례 교차검증을 거치고 연구 자료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확보하고 질적 연구의 진실성을 확보하였다. 또한 분석된 자료를 참여자들에게 공유하여 왜곡과 오류를 거듭 수정하여 연구 자료 분석의 명확성을 확인하였다.

#### 3.3 윤리적 고려

참여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연구 수행하는 과정에서도 연구윤리를 지키고자 하였다. 연구 참여 의사를 밝힌 이후 본격적인 면접을 실행하기 전 다시 한 번 더 연구 참여자에 대한 권리와 연구의 목적을 설명한 다음, 동의서의 내용을 확인하고 고지된 동의 절차를 거쳤다. 또한 참여자 중 연구 중에 불편한 내용이 있을 경우 언제든지 참여자의 요구에 따라 거절할 수 있음을 고지하였다.

## 4. 연구 결과

연구 참가자는 복지관에서 SNS 활용 교육 참가자 6명과 피교육자로서 교육 당사자의 경험을 바탕으로 현재 SNS 활용 교육 시 보조강사 역할을 하고 있는 5명의 도우미 강사이다.

약속되어진 첫 번째 인터뷰 날과 두 번째 인터뷰 날 교육에 연구대상자로 참여하기로 한 교육생 참여자 6명과 보조강사 5명이 비참여자인 다른 수강생들과 함께 수

업에 참여하였다. 강단 앞에서 강사가 '글 그래프'(첫 번째 주 수업), '전국방방곡곡'(두 번째 주 수업)이란 '앱'을 다운로드 활용하는 방법을 대략적으로 설명한 뒤 본격적인 수업이 시작되었다.

돋보기 너머로 휴대폰을 들여다보고 있는 30여명의 수강생 사이를 7명의 보조강사가 오가며 실행 방법을 자세히 알려준다. 여기서 보조강사 7명 중 5명이 연구에 참여하기로 동의하였다. 대화 내용을 보면 젊은이가 노인에게 스마트폰 조작법을 기초부터 하나하나 가르치는 것이라 여기겠지만, 보조강사 역시 수강생과 비슷한 연배로 대부분 일흔이 넘는 노인들이다.

동년배 수강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이들은 노인복지관 정보화교육 보조강사이다. 이 복지관은 2년 전부터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싶어 하는 노인 학습자 대상으로 분기별로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스마트폰에 대한 열기가 가득해 복지관의 다른 수업과는 다르게 출석률도 높다. 수업에 열심히 참석하는 학습자들의 열의에 복지관에서는 강사를 도와 원활한 수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보조강사를 선정하여 스마트폰 수업을 활발하게 운영하고 있다. 그들은 자신이 보조강사를 하면서 '스마트폰을 통해 인생 새막'을 풍성하게 만들어 가고 있는 시니어들이라고 말한다.

인터뷰 진행은 참여자들이 정보화 교육 시 피교육자의 위치에서 정보화 교육의 활성화화를 위한 교수법의 활용도가 통상적 1인 강사의 주도하에 면대 면으로 이루어지는 교수법과 동년배 멘토를 활용한 교수법과의 비교에서 교육의 활성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관하여 스마트폰 구입에서 사용하기까지를 인터뷰 참여자 각각의 관점에서 자유롭게 경험과 의견을 제시하는 방법으로 인터뷰 내용을 정리하였으며 다음과 같이 요약하였다.

#### 4.1 스마트폰 기기 사용에 대한 만족감

연구 참여자들을 대부분 평범하게 자신의 주어진 삶에 열심히 노력하며 살았다 자부한다. 이들은 모두 현재 서울지역에서 특별하게 부유하지 않아도 보통의 평범하게 노후의 삶을 관리하며 살아가고 있다고 말한다. 연구 참여자들은 스마트폰 기능을 다양하게 알아서 사용하지는 못해도 스마트폰을 사용하기 전보다는 현재가 좋다고 모두 스마트폰 사용에 매우 만족한다고 응답했다.

“동영상 같은 거 오면 보고 또 보고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요즘은 스마트폰에 푹 빠져 살아요. 스마트폰 때문에 사는 것이 너무 재미있어요.”(참가자 K)

“그냥 여러 면에서 인터넷으로 내 맘대로 보고 싶은 거 찾아보고 할 수 있어서 특별한건 안 해도 스마트폰 없으면 이제는 잠지도 못할 것 같아요.”(참가자 A)

“일찍이 자식들 외국 보내고 두 늙은이만 사는데 전화요금 나올까 자식들과 통화도 못 했는데 얼굴 보고 영상 통화도 하고 무료 통화도 맘대로 하고 정말 너무 좋아요.”(참가자 D)

“혼자되고 늘 외롭고 우울했는데 스마트폰을 배우고 나서는 전혀 외롭거나 우울하지 않아요. 심심하면 조카들과 화상으로 통화도 하고 유튜브를 보면서 운동도 하고 노래도 따라 부르고, 음식도 따라 맛있게 해먹거든요. 단지 같은 친구들이 스마트폰을 나 보다 못해서 친구들과 소통은 잘 안 되어 그것이 안타깝지요. 친구들과 같이하면 더 좋을 텐데...”(참가자 I)

“스마트폰 활용에 자신감이 생기니 다른 사람들과의 소통에도 불편함이 없고 정보 공유도 많이 하여 좋고 무엇보다도 자식들과 사진도 주고받고 다양하게 안부하고 지내니 세대 간 소통이 원활해져 자식들과 사이도 더욱 가까워진 것 같아 기쁘고 행복하답니다.”(참가자 C)

“정보화 교육 후 스마트폰 사용에 자신감이 생기니 전반적인 생활이 만족스러워 지고 스마트폰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아져서 친구 같아요.”(참가자 G)

#### 4.2 스마트폰 구입과 기기에 대한 두려움

노인들은 대체로 자신의 의지대로 스마트폰을 구입하는 것을 어렵게 느낀다. 더욱이 노인들은 새로운 기기에 대하여 호기심 보다는 두려움을 더 많이 가지고 있다. 그리고 구입 후에도 설정하고 사용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한다. 기기의 사용에 대한 두려움으로 누군가에게 의지를 해야만 사용할 수 있게 된다고 말하는 응답자 11명중 9명이 답했다. 또한 잘 못 사용하면 고장이 나거나 요금 폭탄을 맞을까 하는 막연한 두려움이 내재되어 있었다. 더욱이 전자기기의 특성상 버퍼링이 생기거나 하면 잘 못 만져 고장이라도 난 것인가 하여 기기 사용에 위축이 되는 것은 더욱 심해졌다 한다.

“처음에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그러더라고요. 스마트폰을 잘못 하게 되면 요금이 많이 나간다고 그래서 내가 우리 아들한테 물어보니까 엄마 이걸 막 써도 괜찮으니 겁내지 말고 이것저것 눌러보고 써보라고 하더라고요.”(참가자 E)

“스마트폰을 선물 받고 처음엔 너무 좋아 친구들한테 자랑도 많이 했는데 막상 사용하러니 우리 영감님도 가르쳐 주려고 안하고 아들도 귀찮아하는 것 같아 막 속상 하더라고요.”(참가자 H)

“우리 딸은 막 못 바꾸게 하더라고요. 노인들은 기능이 복잡해서 다루기가 어렵다고 그냥 편하게 쓰던 폴더 폰으로 전화를 걸거나 받으면 될 텐데 어려운 걸 배우려고 사서 고생하러 한다고...”(참가자 G)

“둘째 아들이 생일 선물로 스마트폰을 사줬어요. 그동안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친구들이 부러웠는데 막상 손에 들고 보니 어찌 해야 하는지 막막하기만 했어요”(참가자 A)

“내가 내 돈 내고 바뀌도 되는데 내가 잘 모르니까 내 마음대로 못 바꾸지... 딸에게 바뀌 달라 해서 겨우 허락해서 바꿨어요.(참가자 K)

“처음 스마트폰을 구입했을 때는 도무지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 몰라 그냥 편하게 번호 누르고 통화 하고 메시지나 주고받을 것을 괜한 짓을 했나보다 후회도 많이 했어요.”(참가자 B)

“그냥 번호만 꺾꺾 누르면 되는 폴더 폰과는 달리 잘 못 될까봐 맘대로 만지지도 못하고 여간 어렵지 않더라구. 처음 며칠 동안 잠을 못 잤어요.”(참가자 J)

“함께 복지관 같이 다니는 노인네도 하는데 은근히 샘이 나세요. 막상 구입하고 보니 자식들은 내가 나이 들어 말귀를 못 알아듣는다고 자꾸 묻는 걸 싫어해서 복지관에서 배웠지요. 지금은 바꾸길 정말 잘했다 생각해요.”(참가자 C)

“복지관에서 동료들이 스마트폰 배운다고 자랑할 때도 난 그냥 쓰던 폴더 폰이며 되지 이 나이에 전화기 가지고 특별히 할 일이 없을 거라 단정했지. 그런데 자기들끼리 카톡을 보냈네, 동영상도 보냈네 하는데 무슨 말인지 통 모르겠고, 나만 혼자인거 같아 소외감이 느껴졌어요.”(참가자 I)

“나야 늘 혼자니까 누구에게 물어 볼 수도 없고, 뚜껑 열고 쓰는 핸드폰을 아주 오래 썼는데 고정인거 같아 대리점 갔더니 기한도 넘었고 기기 요금도 저렴하니 하나 바꾸라는 직원의 권유로 용기를 내어 구입하게 되었어요.”(참가자 H)

스마트폰은 다양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노인들의 특성상 스마트폰을 사용한다는 것은 하나의 도전이기도 하다. 구입부터 문제이기도 하지만 구입 후 사용하기까지의 곡절도 많다.

#### 4.3 기기활용 교육과 멘토의 필요성과 자부심

또한 참가자들은 모두가 처음 스마트폰을 배우는데 애로 사항이 많았다 한다. 무엇보다도 도저히 혼자서는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였다고 이구동성으로 말한다. 특히 스마트폰은 노인들에게 새로운 기술이다. 나이 들

어가며 새로운 기술의 영역은 젊은 층들만의 영역으로 여겨지면서 노인들은 이종으로 소외 되고 있었다. 특히 스마트폰 기기 사용이 일반적인 사람들에게겐 그리 어렵지 않은 조작이지만 노인들에게는 아주 특별한 자부심과 자긍심을 심어줄을 알 수 있다.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 남다른 자신감이 생기더라고요. 다른 노인들이 못하는데 내가 할 수 있다니까 얼마나 뿌듯하고 기분이 좋은지... 더구나 다른 사람을 가르친다는 것이요. 그냥 뿌듯하고 생활이 즐거워요”(참가자 D)

“우리 동서가 6명인데 약사, 교사 등 많이 배운 집 딸들이라고 시집와서 내가 켈 못 배우고 쳐져서 평생을 기죽어 살았는데 요즘 들어서 스마트폰은 내가 켈 잘한다고 부러워해요. 복지관에서 보조 선생님인데 우리 동서들 만나는 날도 내가 선생님이야 (웃음)...(참가자 G)

“보조강사로서의 자신감과 자부심으로 ‘스마트폰이 열어 준 신세계’를 경험하니 교육 받기 어려워하는 다른 노인들에게 스마트폰의 유용함을 전하고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니라고 미리 걱정하지 말라고, 수업참여를 독려했으면 좋겠습니다.”(참가자 I)

“새로운 기기에 대한 두려움과 배움이 부족해 자신감이 없어 정보화 교육 참여를 꺼렸는데 동년배의 친근한 배려로 배우고 나니 자신감이 생겨 이제는 살아가는데 스마트폰이 없으면 절대로 안 될 것 같아요.”(참가자 F)

“실은 나는 영어를 안 배워서 몰라요. 우리 때는 먹고살기 힘들어서 공부를 못 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앞에 강사 선생님한테는 창피해서 질문도 못하는데 동년배에게는 같은 노인이기에 애로사항을 잘 공감해 주어 자존심도 상하지 않고 부담 없이 질문도 할 수 있어서 배우기가 정말 좋아요.”(참가자 B)

“동년배의 차분한 도움으로 반복해 알려주니까 기계에 대한 두려움도 감소되고 몰랐던 정보에 적극 활용하고 싶은 욕심이 생겨 이것저것 눌러보며 새로운 배움의 즐거움에 빠지게 되었지요”(참가자 E)

“평소 보조 강사들이 부러웠는데 나도 스마트폰 사용이 용이해 지니 다른 친구들에게 알려주고 싶어 멘토를 자원했고 그러다보니 요즘 왠지 삶의 질이 높아지는 것 같아 더없이 행복하답니다.”(참가자 A)

“보조강사가 되어 가르친다고 참여하고 보니, 노인들 특성상 빨리 이해도 못하고 잘 받아들이지 못하는 노인들을 가르친다는 것에 강사들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래서 노인들 교육하기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걸 이해하게 되었지요.”(참가자 C)

“여러 사람을 강사 혼자 상대해서 노인 개개인의 보조를 맞추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 형식적인 수업이 될

수밖에 없고 수업에서 이해하고 끝났다 해도 돌아서면 금방 잊어버리는 노인 교육 참여자들을 보며 안타까움도 알게 되었지요. 그래서 보조강사로서 처음 배울 때 어려움을 떠올리며 같은 처지이기에 열 번 물어도 친절하게 반복적으로 알려 주려해요.”(참가자 K)

“소외 되지 않고 사람들과 소통하려면 시대의 흐름에 맞는 스마트폰과 같은 매체를 사용해야 한다고 젊은 사람들과 이웃에 소외되지 않으려면 반드시 스마트폰을 배워야 한다고 주변에서 스마트폰을 다루기 어려워하는 동년배 노인들에게 적극 권하고 있어요.”(참가자 B)

“노인들을 위한 수업이니만큼 수업 진도를 천천히 반복했으면 좋겠고 양적인 교육보다 질적인 수업이 되도록 수업시간을 좀 더 길게 할애 해 줬으면 좋겠어요. 교육 시간을 분기보다 상·하 반기로 연장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참가자 D)

“노인학습자에게는 노인 특성과 욕구를 고려한 동년배 보조강사를 활용한 수업이 반드시 필요해요 우리는 똑 같이 늙어가고 있고 어려운 교육을 먼저 받은 경험자니까 어려운 심정을 이해해주고 노인일수록 새로운 것을 피하지 말고 배워야 젊은이들과 소통하며 같이 살아갈 수 있다는 걸 이해시키고 알려줘야지요.”(참가자 F)

“우리 또래 노인들은 고집도 세고 자기주장이 강하지만 사실은 마음이 약하답니다. 잘 이해시키고 설득하여 교육 참여를 독려하기에는 같은 노인들이 제격이죠.”(참가자 J)

“노인들의 특성상 노인 눈높이에 맞는 교육 환경과 세심한 배려를 할 수 있는 보조강사를 보다 많이 투입하여 밀착 수업을 하면 노인들의 수업이 원활해질 것이고 기기활용 증진에 많은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노인 동년배 보조강사의 증원을 희망합니다.”(참가자 H)

등으로 나타났다.

## 5. 결론

본 연구는 노인정보화교육의 활성화 증진을 위하여 적용할 수 있는 효율적인 학습방법으로 현행 개별화 수업의 대안적인 교수법으로 동년배 멘토를 활용한 교수법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연구는 현재 노인복지관 정보화 수업에 교육생으로 참여하고 있는 참여자 6명과 보조 강사로 활동하고 있는 참여자 5명을 대상으로 SNS 활용 교육의 참여 경험을 토대로 현재의 심정과 상황 그대로의 상태를 탐색적으로 연구하고 노인 SNS활용 교육의 실질적인 문제점과 활성화 방안에 대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확인 하였다.

연구 참여자들 다양한 스마트폰 기능을 알아서 사용하지는 못해도 스마트폰을 사용하기 전보다는 현재가 좋다고 모두 스마트폰 사용에 매우 만족한다고 응답했다. 노인들은 대체로 자신의 의지대로 스마트폰을 구입하는 것을 어렵게 느낀다. 더욱이 노인들은 새로운 기기에 대하여 호기심 보다는 두려움을 더 많이 가지고 있다. 그리고 구입 후에도 설정하고 사용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기기의 사용에 있어서도 기기에 대한 두려움으로 누군가에게 의지를 해야 기기를 다루게 된다. 노인들 특성상 다양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을 사용한다는 것은 하나의 도전이기도 하다. 스마트폰은 노인들에게 새로운 기술이다. 나이 들어가며 새로운 기술의 영역은 젊은 층들만의 영역으로 여겨지면서 노인들은 이 층으로 소외 되고 있었다. 정보화 기기에 대한 두려움과 학습의 부재로 자신감 결려까지 다양한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 일반적인 사람들에게겐 그리 어렵지 않은 기기 조작이 노인들에게는 아주 특별한 자부심과 자긍심을 심어줄 수 있었다. 더욱이 동년배 멘토의 역할에서 느끼는 감정은 보람과 자신감을 북돋아주며 일상이 즐겁고 행복하여 자존감이 상승하고 생활의 활력을 줌으로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끼치고 있었다. 노인정보화 교육은 노인의 사회관계 형성과 사회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반드시 교육이 필요하다. 보다 많은 노인들에게 교육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서는 동년배 멘토를 활용한 교수법이 노인들의 특성상 반드시 유효함과 필용함을 확인하였다. 그리하여 수업 진도를 잘 따라가지 못하는 노인이나 기기를 잘 다루지 못하는 노인을 위해서는 동년배 멘토를 활용한 교수법을 적용하여 밀착 강의를 진행하면 수업이 효과적일 것 이라는 결론을 도출했다.

고령사회와 빠르게 변화하는 정보화 시대에 노인들이 소외 되지 않고 젊은 세대와 소통하며 함께 정보를 공유하고 노인들의 길어진 삶을 보다 즐겁고 보람되게 살기 위해서는 SNS 교육은 반드시 필요하다 하겠다. 노인들이 노인이라 안주하여 젊은이들에게 의지하기 보다는 노인들 스스로가 시대에 맞게 노인정보화 교육을 통하여 젊은이들에게 접근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노인들이 정보화 능력을 습득하게 되면 사회와의 소통이 원활해진다. 그러므로 정보화 교육의 활성화는 고령사회에 노인들에게 또 다른 세상으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그로인하여 노인의 삶의 질이 높아지고 생활의 만족으로 이어져 길어진 노년의 시간들이 더욱 행복하게 될 것이다. 그러기에 노인정보화 교육의 시급성과 중요성, 교육의 확산과 활성화를 위하여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다.

위의 연구를 통하여 확인한 것처럼 노인정보화 교육이 통상적인 세대가 다른 1인 강사의 면대면 수업보다 세대를 공감할 수 있는 같은 세대의 노인이 다가가기 용이한 동년배 멘토를 활용하는 교수법을 활용한다면 노인정보화 교육이 보다 다양하고 효과적이며 노인들에게 친근감이 넘치는 수업으로 이어갈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의 보조강사에서부터 다양한 동년배 멘토를 활용하는 교수법을 개발하여 적용함이 시급하다. 그리고 동년배 멘토 강사로의 인력양성을 체계적으로 육성 발굴하여 고령사회에 걸맞게 노인일자리 창출에도 효과적이고 생산적인 교수법이 되도록 대응전략을 세우고 실행해야 한다.

또한 효과적인 노인정보화교육을 위해서는 노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하여 노인 세대에 맞는 맞춤형 교육으로 기기에 대한 두려움과 노인의 신체적 특성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에도 역점을 두어야 한다. 동년배 멘토를 체계적으로 양성하여 다른 세대의 1인 강사에 의한 정보화 교육시 학습자 개개인에게 동년배 멘토를 1인씩 밀착하여 수업의 내용을 학습자에게 거듭 전달과 이해시키는 역할을 맡긴다면 노인 정보화 교육이 보다 활성화 될 것이다. 그리고 노인 정보화 교육이 지금까지 양적인 교육에 중점을 두었다면 이제는 질적인 교육으로 교육장을 떠나면 잊어버려 사용하지 못하는 노인들의 특성을 극복하고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노인 정보화 교육이 되어야 한다. 더욱이 면대면 교육이 어려운 언택트(Untact) 시대에 체계적으로 교육된 동년배 멘토를 활용하여 가정에서 고립된 노인들의 가가호호를 방문하여 화상교육 등 1:1 개별 교육을 통하여 외로움과 우울에서 벗어나 비대면에서도 젊은이들처럼 소통하며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하게 되어 삶의 활력을 찾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연구가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에 맞는 노인 SNS교육의 활성화 증진을 위해서 동년배 멘토를 활용한 1:1 밀착 교육으로 성공적인 노인 정보화 교육이 실현되어 세대 간 원활한 소통으로 삶의 만족과 그로인하여 삶의 질이 높아지고 노인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향후에도 노인의 SNS 활용 증진과 활성화를 위하여 지속적인 관심과 실천을 후속 연구 과제로 남긴다.

## REFERENCES

- [1] M. J. Kang. (2017). *A Study on the Acceptance of Health Communication Campaigns according to the degree of self-impression management expressed in SNS media: Focusing on Goffman's Impression Management Theory and Application of Health Belief Model (HBM)*. a doctoral dissertation Sungkyunkwan University, Seoul.
- [2] D. S. Park et al. (2017). *Seven ICT trends that change Korea*. Seoul : Hans Media.
- [3] Statistics Korea. (2019). *2018 Korea's social indicators*. Seoul : Statistics Korea.
- [4] S. H. Cho & Y. S. Yoo. (2016). Effects of low-income elderly people's participation in social activities on life satisfaction: focusing on the mediating effects of loneliness. *Welfare Studies for the Elderly*, 71(4), 35-59.
- [5] Y. H. Kim. (2016). *Analysis of Social Network Service (SNS) usage trend and behavior*. KISDI STAT REPORT, 16-07.
- [6] H. O. Heo, S. J. Woo & U. S. Kang. (2002). The effect of peer-to-peer teaching and learner's tendency on academic performance and self-efficacy in computer practical classes. *Journal of the Computer Education Conference*, 5(4), 19-30.
- [7] H. B. So. (2016). *Advertising effects according to SNS advertising attributes: focusing on the difference in SNS users' lifestyles*. A master's thesis. Graduate School of Silla University, Busan.
- [8] S. Y. Yoo. (2018). *A Study on the Impact of SNS Marketing Characteristics of Open Market Entry Companies on Market Orientation and Consumer Satisfaction*. A master's thesis. Chung-Ang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Industry and Start-up Management. Seoul.
- [9] C. Bum. (2020). *The effects of SNS characteristics on the awareness and intention of Chinese cosmetics consumers*. A master's thesis. Chung-Ang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Arts, Seoul.
- [10] National Information Society Agency. (2019). *2019 Digital Information Gap Survey Report*. Daegu: National Information Society Agency.
- [11] Ministry of Science and ICT. (2018). *2018 Digital Information Gap Survey Report*. Sejong-S i: Ministry of Science and ICT.
- [12] H. G. Namgung, I. H. Kim & H. R. Chun. (2017). A Study on the Factors Related to the Information Gap of the Elderly in Seoul. *Digital Convergence Research*, Vol.15, No.4, pp73-81.
- [13] J. D. Kwon, Y. J. Kim & T. Y. Um. (2012). A Qualitative Study on the Experience and Meaning of Internet Utilization in the Daily Life of the Elderly. *Korean Gerontological Society*, 32(3), 853-850.
- [14] W. S. Kang, M. S. Kim & J. W. Ko. (2013). The effect of smartphone information utilization and achievement on the satisfaction of life of the elderly. *Journal of the Korean Association of the elderly*, 33(1), 199-214.
- [15] C. K. Kim & J. M. Lee. (2018). The Direction of Development of Information Education for the Elderly



from the Perspective of Elderly Learners. *A collection of presentations at the Korean Association for the Elderly, Vol.2018 No.2*, 1-29.

- [16] S. H. Jung. (2014).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Smartphone Use for Older Users: Focusing on Physical Cognitive Characteristics and Difficulties in Understanding Concepts, Terms and Technologies. *Design Convergence Research, Vol.13 No.2*, 277-295.
- [17] M. W. Choi. (2005). *A Study on the Moderating Effect of Job Characteristics in the Relationship between Mentoring and Organizational Commitment*. Thesis for Master's Degree. Dankook University, Seoul.
- [18] Korean School Social Workers Association. (2009). *Dream to you dream to you the basis of mentoring*. Seoul: Korean School Social Workers Association.
- [19] I. D. Kim. (2006). *A Study on the Influence of Mentoring of Casino Dealers on Job Satisfaction*. Thesis for master's degree. Jeju National University, Jeju.
- [20] Y. S. Kim. (2008). Current status and practical application of information service education for the elderly, *focusing on students in Daejeon Metropolitan City*. A master's thesis. Seowon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eongju.
- [21] J. R. Han. (2005). *Understanding of old-age education*. Seoul : Hakjisa.
- [22] B. J. Lee & S. H. Myung. (2010). The effect of the information service awareness and Internet utilization of the elderly on the formation of social networks. *Journal of Korean Regional Information Association, 13(4)*, 151-179.

**최 예 식(Ye-Sik Choi) [정회원]**



- 2004년 2월 : 국민대학교 사회복지학 (석사)
- 2017년 2월 : 광운대학교 홀로그래피 콘텐츠학(박사수료)
- 2008년 9월 ~ 현재 : 주식회사 우진 티엔에스 대표
- 관심분야 : 사회복지, ICT융복합, 정보콘텐츠

· E-Mail : choilee812@hanmail.net

**권 순 철(Soon-Chul Kwon) [정회원]**



- 2012년 2월 : 광운대학교 정보디스플레이(공학박사)
- 2013년 9월 ~ 현재 : 광운대학교 스마트융합대학원 부교수
- 관심분야 : VR, AR, XR 응용. 실감미디어
- E-Mail : ksc0226@kw.ac.kr

**이 승 현(Seung-Hyun Lee) [정회원]**



- 1988년 2월 : 광운대학교 전자공학과 (석사)
- 1993년 2월 : 광운대학교 전자공학과 (박사)
- 1993년 2월 ~ 현재 : 광운대학교 스마트융합대학원 교수
- 관심분야 : 3D홀로그램 및 이미지 신

호처리  
· E-Mail : shlee@kw.ac.kr

**임 성 규(Sung-kyu Lim) [정회원]**



- 2014년 2월 : 광운대학교 이터닝 콘텐츠(석사)
- 2017년 2월 : 광운대학교 홀로그래피 콘텐츠학(박사수료)
- 2018년 12월 ~ 현재 : 주식회사 에스비티엔에스 대표
- 관심분야 : AR/VR, 게임

· E-Mail : lim-top@hanmail.net

**조 성 원(Seung-Won Cho) [정회원]**



- 1996년 2월 : 홍익대학교 전산교육학 (석사)
- 2017년 2월 : 광운대학교 홀로그래피 정보콘텐츠(박사수료)
- 2020년 4월 ~ 현재 : 경기대학교 산학협력단 조교수
- 관심분야 : 공공데이터 API 활용 창업

융복합  
· E-Mail : cswm22@hanmail.net